

체육대통령은 누구? 운명의 날 밝았다 이기흥-이종걸-유준상-강신욱 4파전

대한민국 체육대통령을 뽑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8일 모바일 투표로 치러진다. 체육회 대의원과 회원총독 단체, 17개 시·도체육회와 22개 시·군·구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무작위로 선정된 선거인단 2170명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번 선거에는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인 이기흥 현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교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체육회의 다음 100년을 이끌 비전을 제시해야 할 수장을 뽑는 행사임에도 분위기는 혼탁했다. 정치권의 개입과 각 후보 진영의 선거인단 접촉 허용 등으로 인해 상호 비방의 목소리가 난무했고,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제소 및 고발도 잇달았다.

과반 득표를 목표로 삼은 이기흥 후보는 ▲스포츠인 권존중 시스템 구축 ▲중장기 체육재정 확보 ▲체육인 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2032서울·평양올림픽 유치 및 남북체육교류 추진 ▲전문·생활·학교체육의 선순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를 비난했던 이종걸 후보는 ▲체육예산 2배 이상 확충 및 체육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지역 선수·지도자 일자리 창출 ▲체육인 처우 개선 등을 내걸었다.

유준상 후보는 ▲체육청 신설 및 정관 정비 ▲체육인 복지 개선 ▲스포츠글로벌센터 설치 ▲시·도체육회 재정 확대 및 실업팀 창단 지원 등을, 강신욱 후보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지도자·선수 처우 개선 ▲학교체육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며 득표활동을 벌여왔다.

후보들은 15%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기탁금 7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남정현 기자

김은수 한화갤러리아 대표 제30대 대한사격연맹 회장



김은수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59)가 제30대 대한사격연맹 회장으로 선임됐다. 연맹은 17일 "연맹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은수 대표가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 규정에 따른 후보자 심사를 거쳐 당선자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사격 사랑은 특별하다. 김승연 회장의 각별한 애정과 그룹 차원의 전폭적 후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연맹 회장사를 맡아 한국사격과 인연을 이어왔다. 성과도 출중했다. 한국사격은 2002부산아시아안게임을 시작으로 각종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했다. 특히 2008베이징올림픽에선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잃었고,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선 단일종목 사상 최다 금메달(13개)을 획득했다. 2012런던올림픽 때도 금 3, 은 2개로 종목 종합 1위의 쾌거를 이뤘다.

또 한국사격은 2018년 창립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고, 한화는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국가대표 해외전지훈련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0여 원에 달하는 사격발전기금을 출연했다.

26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김 신임 회장은 "한화와 연맹이 함께 이룬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앞으로도 한국사격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사격이 공정의 가치가 높은 종목, 스포츠문화를 선도하는 단체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도로공사, 외인 성공 스토리 재현할까?

자신감 붙은 켈시, 맥마흔이 보인다

(2015~2016시즌 MVP)

시즌 초반 범실 많아지자 시무룩 최근 토스 높이 조절 이후 상승세
흥국생명전 한경기 최다 49득점도
켈시 꾸준한 활약맨 볼배구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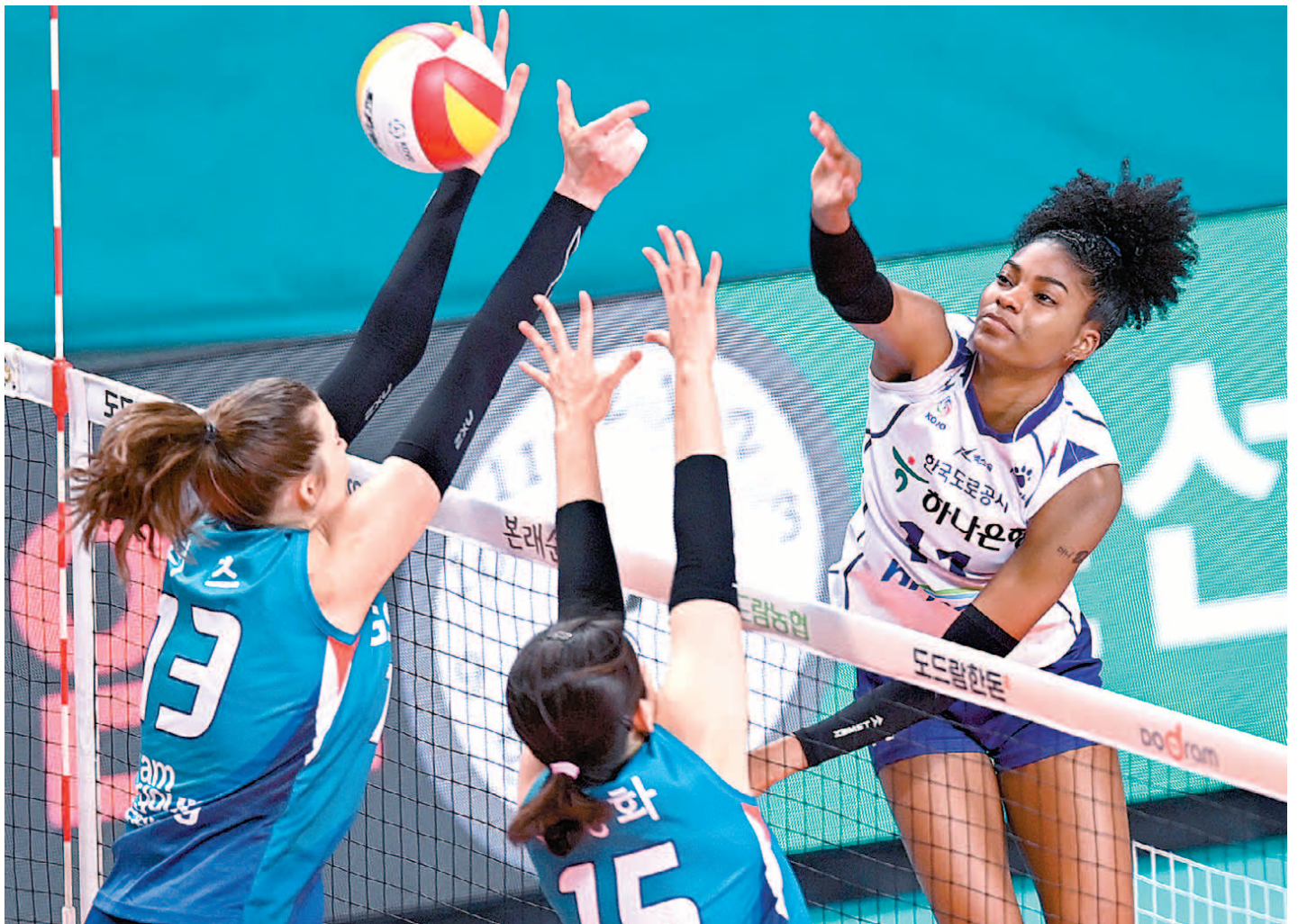
V리그의 '찐 팬'이라면 리즈 맥마흔(28)을 기억할 것이다. 여자부 첫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열린 2015~2016시즌 5순위로 IBK기업은행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다. 얼굴이 하얗게 뜬 채로 치른 데뷔전을 망치고 눈물을 펄펄 쏟았던 당시 화제도 됐다.

성격이 어려서 호랑이 이정철 감독에게 혼도 많이 났다. 키 198cm, 몸무게 87kg의 체격에서 나오는 힘과 타점은 좋았지만, 성격은 소극적이었다. 그런 맥마흔은 대만전을 만들어냈다. 스피드를 포기하고 높이와 파괴력의 장점을 살려준 세터 김사니 덕분에 4~5라운드 연속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정규리그 우승을 안겼고, 시즌 MVP까지 차지했다.

그를 이정철 SBS스포츠 해설위원이 소개했다. 이번 시즌 외국인선수들의 특징을 설명하던 방송 중계 도중 도로공사 켈시(26)를 두고 "맥마흔처럼 눈이 선해 보인다"고 말했다. 켈시 역시 맥마흔처럼 멘탈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지난 시즌 3명의 외국인선수 때문에 많은 애를 태웠던 도로공사 프런트는 이번 시즌 소박한 목표를 세웠다. 우승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외국인선수와 시즌을 끝까지 마치려고 한다. 켈시는 "부상만 없다면 내가 스스로 팀을 떠나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먼저 구단을 안심시켰다. 돼지국밥을 좋아하고 짜게 밥을 말아먹을 정도로 한국생활과 음식에도 잘 적응했다.

아쉬움도 있었다. 코트를 벗어나면 활발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코트에선 조용했다. 경기에 더 집중하려는 의도였지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외국인선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올 시즌에는 켈시(오른쪽)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리그 적응력을 높여나감에 따라 한시름을 덜고 있다. 켈시는 13일 흥국생명전에서 올 시즌 여자부 한 경기 최다득점인 49점을 올리기도 했다. 스포츠동아DB

만, 외국인선수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는 V리그의 특성상 코트에서 행동과 표정으로 활기를 보여주길 바랐다. 특히 아쉬운 것은 공격실패 후의 표정관리였다. 빨리 실패를 잊고 더 뻘뻘해져야 하는데, 켈시는 그렇지 못했다.

실상가상 이번 시즌 처음 주전 세터로 한 시즌을 치르는 이고은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세트 내내 잘 하다가도 20점 이후 중요한 순간만 되면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패스가 흔들렸다. 이 바람에 앞으로 치고나갈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다행히 4라운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17일 현재 팀은 2승2패를

거두며 승점 7을 보였다. 무엇보다 켈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1, 2라운드 36.43%, 36.96%의 공격성공률에 머물렀지만 3, 4라운드 41.92%, 45.12%로 치솟았다.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은 2단 연결 때의 공격효율을 높이려고 켈시가 좋아하는 높이에 공이 가도록 연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투자한 만큼 효과도 나왔다. 라운드당 범실이 39~25~28~17개로 줄었다.

켈시는 13일 흥국생명전에서 이번 시즌 여자부 한 경기 최다득점 신기록(49득점·공격성공률 47%)을 작성했다. 16일 현대건설전에서 29득점, 공격성공률 46.67%를 찍었다. 사흘 새 무려

160번의 공격 점프를 해 피로가 쌓였을 텐데도 상대팀 에이스의 블로킹 위에서 쉽게 공격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 자신이 확인한 높이의 자신감에서 나온 결과다.

박정아가 정상계도로도 접어들고, 정대영-배유나의 센터라인은 6개 팀 중 가장 활발하다. 켈시가 지금처럼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 도로공사의 '볼 배구' 희망은 커진다. 김 감독은 "앞으로 벌어질 4경기가 중요하다. 몇 번 기회를 놓쳤기에 우리 선수들 모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요즘 자신감이 붙은 켈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민 기자 marco@donga.com

케빈 나 '소니오픈' 공동2위...통산 5승 찬스

3R 부진 최경주는 중위권으로 밀려

교포 케빈 나(38·미국)가 통산 5승 기회를 잡았다. 2라운드까지 공동 15위에 이름을 올리며 선전했던 한국 군단의 '말행' 최경주(51)는 뒷걸음질을 치며 중위권으로 밀렸다. 케빈 나(1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인 하와이(총상금 660만 달러·72억8000만원) 3라운드에서 단 하나의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쓸어 담으며 9언더파 61타를 쳤다. 중간합계 16언더파 194타로 순위를 무려 17계단이나 끌어 올리며 호아킨 니만(칠레)과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8언더파 단독 1위인 브렌던 스틸(미국)과는 2타 차.

2019년 10월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통산 4승을 달성했던 케빈 나(3라운드에서 스틸과 나란히 9언더파 '데일리 베스트'를 작성하며 발군의 감각을 뽐냈다. 전반 2번(파4) 홀과 4번(파3) 홀에서 버디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 9번(파5) 홀에서 세컨 샷을 홀컵 2.5m 옆에 붙여 이글에 성공하며 한꺼번에 2타를 줄였다. 11번(파3) 홀에서 다시 1타를 줄인 후 파4 홀인 12~14번 홀에서 잇달아 버디를 잡아 4연속 버디 행진을 펼쳤고, 마지막 18번(파5) 홀에서 2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9언더파를 완성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김시우(26)가 보기 없이 버디 5개만을 기록하며 5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공동 23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2008년 이 대회 우승자인 최경주는 1타를 줄여 이경훈(30)과 합



케빈 나가 17일(한국시간) 열린 PGA 투어 소니오픈인 하와이 3라운드 1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계 9언더파 공동 39위로 랭크됐다. 지난주 대회에서 공동 5위에 올랐던 임성재(23)는 컷을 가까스로 통과한 뒤 3라운드에서도

2타를 줄이는데 그쳐 73명 중 공동 60위(6언더파)에 머물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윤성빈이 15일(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6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1·2차 시기 합계 2분17초32의 기록으로 3위에 올랐다. 생모리츠(스위스) | AP뉴시스

윤성빈, 시즌 첫 레이스 동메달

스켈레톤 월드컵 6차...스타트는 가장 빨라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27·강원도청)의 2020~2021시즌 첫 레이스의 결과는 아쉽게 동메달이었다. 그러나 최고의 강점인 스타트만큼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윤성빈은 15일(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6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에서 1·2차 시기 합계 2분17초32의 기록으로 알렉산더 가스너(2분16초85·독일),

마르티스 두쿠르스(2분16초86·라트비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봅슬레이스켈레톤대표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자가격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진행된 월드컵 1~5차 레이스에 모두 불참했다. 어렵게 6차 대회 참가를 결정했지만, 실전감각 저하에 따른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윤성빈은 달랐다. 주행에선 코스

적응에 따른 아쉬움을 남겼지만, 스타트는 1차 시기 4초78·2차 시기 4초74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2차 시기의 스타트 기록은 출전선수 27명 중 가장 뛰어났다. 1위 가스너(4초94·4초91), 2위 두쿠르스(4초84·4초79) 모두 윤성빈에게 밀렸다. 본인의 최대 강점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22일 독일 괴닉세에서 펼쳐질 월드컵 7차 대회 우승 희망도 커졌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